

11

"국제무대에서 본 정신대문제 현황"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FORT WOMEN" ISSUE

By Dr. Heisoo Shin (신혜수 박사)
Chairwoman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of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Sexual
Slavery by Japan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국제위원회 의장)

--Dr. Shin just attended Amnesty International Meeting(US) &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Geneva) session.

Time: March 1 (Tues.) 7 PM (3월 1일 저녁 7시)

Place: Korean Association of NY (6th Floor) (뉴욕한인회관)
149 W. 24th St., NYC

Co-sponsored by: Korean American Coalition on Jungshindae,
NY Korean YWCA & YKAN (미동독정대협, NY한인YWCA & YKAN)

For Info: 212) 679-3482

*Share Korean Women's Pains-

(Korean policemen taking a
Korean comfort woman to
a hospital. She tried to
kill herself in protes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of
refusing to pay any re-
parations to the indi-
vidual victims of the
forced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26/94 한 국 일 보



◇정신대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속
한 배상을 요구하던 정신대 할머니가 합복을
기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실신,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吳大根기자]

Korea Times

1994년 2월 25일 (금요일)

한국일보



▲정대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들이 뉴욕한인봉사센터 주최 경로대 잔치에서 모금한 성금을 본보에 전달한 김명신씨(왼쪽)와 유재순 경로회관 무용단장.

모금캠페인 본격 돌입 정대협 활동기금 마련

각계서 동참 밝혀

미동부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정신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신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다.

정대협은 오는 3월 1일

기미년 독립운동일을 맞아 활동기금 마련을 목표로 한인사회 각 단체 및 기업, 일반인들을 대상,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대협은 모금액의 목표를 10만달러로 결정하고 한인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같은 정대협의 방침에 노인들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이는 한인 모두의 문제로 다같이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라며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경로회관 회원들은 23일 3백64달러61센트를 지난 18일 가진 경로대잔치에서 모금, 23일 본보에 전했다.

봉사센터 경로회관 무용단 지도교사 유재순씨와 회원 김명신씨는 이날 성금을 전하면서 "노인들의 이 뜻이 한인사회 각계로 확산돼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운동에는 좋은이웃봉사회와 중앙장사도 동참, 각각 1천달러와 3백달러의 성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대협은 앞으로 본보와 함께 모금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일본 검찰청에 국제법에 준한 가해자 처벌 ▲국제여론 환기를 위한 6월에정 각국 희생자 및 활동 대표 초청 국제 공청회 ▲미주내 일본인 가해자 발굴 ▲UN 중심 국제모임에 정신대문제와 관련 로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